

대학생의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영태^{1*}

¹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복지과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e of Career Locus of Control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Efficacy

Young-Tae Kim^{1*}

¹Dept. of Multicultural Welfar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I시에 소재한 대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결과에 대하여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은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진로 탐색 및 진로선택, 구직활동을 하는데 내적통제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지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분석이 이루어지며, 대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areer locus of control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efficacy. For this purpose, it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476 university students in I c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irst is that there were no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career locus of control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for subjects' background variables. The second is that it fou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elationship between career locus of control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Lastly, it found that career locus of control has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efficacy. Giv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inner career locus factors of control have strong effects on career search and career decis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played an important role on career related decision making and career coaching. In this point, it is required to perform more studies and analyses on career locus of control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on various career coaching programs in the future.

Key Words : Career Locus of Control, Career Decision Efficac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의 진로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1]. 대학생의 시기는 현실적

직업 선택의 실천단계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고 직업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2].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입학할 때 가졌던 자신의 진로 목표를 향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가란 쉬운 일이 아니다. 취업 문제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나 취업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Young-Tae Kim(Wonkwang Health Science Univ.)

Tel: +82-10-2877-7536 email: kytkt@wu.ac.kr

Received August 7, 2013 Revised (1st September 6, 2013, 2nd September 11,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취업 성취에 있어서는 취업을 원하는 본인의 특성이나 태도, 취업에 대한 대처행동도 중요하다[3].

또한,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진로결정을 직면한 현실 문제로 받아들이며 거의 강박적인 수준에서 고민하거나 자포자기 상태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되며, 미취업 20대 청년들은 취업한 청년에 비해 신체적 증상, 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및 불안 등의 취약한 정신 건강상태를 보여 문제가 되었다[4]. 그러므로, 효율적인 직업선택과 만족스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한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5].

이러한 진로결정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 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며[6],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는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7]. 따라서,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은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강조되는 발달과정이며, 이 발달 단계에 있는 대학생 시기는 진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듯 대학생 시기에는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직업세계에 입문해야 하는 공통된 과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8].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소재를 지닌 사람은 외적 통제소재를 지닌 사람에 비해,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내적 통제소재자의 높은 일반적 통제감 또는 통제대기가 목적 지향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심리적 성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통제소재는 개인적 성향으로서, 인간의 여러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4]. 또한, [9]는 통제소재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고, [10]는 내적 통제소재의 특성을 지닌 사람은 성패의 원인을 능력과 노력으로 지각하고 외적 통제소재의 특성을 지닌 사람은 과제의 곤란도와 운으로 지각하고 불안정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구직행동을 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통제소재를 사용하는가를 아는 것은 진로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될 것이다[8].

이와 같은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과 관련한 진

로결정효능감과 연관이 있다고 볼 때에 대학생들이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그들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 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진도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효능감은 배경변인별(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셋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대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24부를 제외한 476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N	Percentage
Gender	Female	222	46.6
	Male	254	53.4
Grade	1st	98	20.3
	2nd	145	30.5
	3rd	97	20.4
	4th	136	28.6
Major Field	Humanity	167	35.1
	Social	74	15.5
	Art & Physical	45	9.5
	Natural	50	10.5
	Technology	140	29.4
	Total	476	100

2.2 연구도구

2.2.1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내외통제소재란 진로탐색과 진로선택, 구직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주로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러한 결과에 어느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8]. 진로내외통제소재는 [8]이 개발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68~.79이었다. 설문지는 4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다른 설문지의 형태가 서로 다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응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점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수는 23문항이며, 내적통제 5문항, 효능감 및 무력감 4문항, 간접적 환경 6문항, 직접적 환경 4문항, 행운 및 기회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 Factors	Question Number	N	Cronbach's α
Internality	2, 7, 12, 17, 22	5	.801
Efficacy and Helplessness	4*, 9*, 14, 19	4	.665
Indirectly Environmental	1, 6, 11, 16, 21, 23	6	.614
Directly Environmental	3, 8, 13, 18	4	.749
Luck and Opportunity	5, 10, 15, 20	4	.603
Total		23	.856

* : 부정적인 문항

2.2.2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행해야 하는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다[11].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12]가 개발한 CD MSE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인 CDMSES-SF[13]를 [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68~.92이었다. 설문지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수는 25문항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당 5문항씩 구성되었다.

[Table 3]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 Factors	Question Number	N	Cronbach's α
Job Information	1, 2, 3, 4, 5	5	.745
Select the target	6, 7, 8, 9, 10	5	.797
Future plans	11, 12, 13, 14, 15	5	.748
Problem Resolution	16, 17, 18, 19, 20	5	.700
Self-evaluation	21, 22, 23, 24, 25	5	.813
Total		25	.898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배경변인별(성별, 학년별, 계열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검증을 하였다. 또한,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 요인의 신뢰도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물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배경변인별에 따른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3.1.1 성별에 따른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진로내외통제소재에서 여학생과 남학생들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적통제($F=33.482, p<.001$)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직접적 환경($F=45.421, p<.001$)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 환경($F=7.007, p<.01$)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효능감 및 무력감과 행운 및 기회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진로결정효능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선택($F=9.499, p<.01$)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로내외통제소재에서 여학생은 내적통제가 남학생들은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은 여학생들이 목표선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이해와 노력, 직업준비 정도에 따라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 구직활동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남학생들은 사회적환경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 구직활동의 결과를 통제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4]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gender

Spec.		Gender	N	M	SD	F	p
Career Locus of Control	Internality	Female	222	4.23	.58	33.482	.000
		Male	254	3.88	.74		
		All	476	4.04	.69		
	Efficacy and Helplessness	Female	222	3.45	.76	1.976	.161
		Male	254	3.35	.69		
		All	476	3.40	.72		
	Indirectly Environmental	Female	222	2.68	.59	7.007	.008
		Male	254	2.83	.58		
		All	476	2.76	.59		
	Directly Environmental	Female	222	1.75	.60	45.421	.000
		Male	254	2.19	.80		
		All	476	1.99	.74		
	Luck and Opportunity	Female	222	3.11	.70	.449	.503
		Male	254	3.07	.63		
		All	476	3.09	.66		
	Total	Female	222	3.06	.25	.322	.571
		Male	254	3.08	.25		
		All	476	3.07	.25		
Career Decision Efficacy	Job Information	Female	222	3.27	.73	1.283	.258
		Male	254	3.19	.75		
		All	476	3.23	.74		
	Select the target	Female	222	3.63	.76	9.499	.002
		Male	254	3.42	.72		
		All	476	3.52	.74		
	Future plans	Female	222	3.13	.70	2.235	.136
		Male	254	3.22	.69		
		All	476	3.18	.70		
	Problem Resolution	Female	222	3.24	.71	1.139	.286
		Male	254	3.17	.71		
		All	476	3.20	.71		
	Self-evaluation	Female	222	3.45	.74	.582	.446
		Male	254	3.40	.74		
		All	476	3.42	.74		
	Total	Female	222	3.34	.56	1.543	.215
		Male	254	3.28	.54		
		All	476	3.31	.55		

3.1.2 학년별에 따른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 효능감의 차이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효능감이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진로내외통제소재에서 학년별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효능감에서 학년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정보 (F=2.879, p<.05)에서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로내외통제소재에서 진로탐색과 진로선택, 구직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내적 또는 외적인 요인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학년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에서 4학년이 직업정보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졸업과 동시에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심있는 직업을 찾아

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5]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grade

Spec.		Grade	N	M	SD	F	p	Scheffe
Career Locus of Control	Internality	1st	98	3.91	.69	2.382	.069	
		2nd	145	4.02	.71			
		3rd	97	4.05	.68			
		4th	136	4.15	.67			
	Efficacy and Helplessness	1st	98	3.35	.77	.535	.659	
		2nd	145	3.46	.74			
		3rd	97	3.39	.75			
		4th	136	3.37	.65			
	Indirectly Environmental	1st	98	2.75	.48	1.003	.391	
		2nd	145	2.81	.58			
		3rd	97	2.78	.63			
		4th	136	2.69	.64			
	Directly Environmental	1st	98	2.06	.73	.719	.541	
		2nd	145	2.02	.73			
		3rd	97	1.94	.76			
		4th	136	1.94	.76			
	Luck and Opportunity	1st	98	3.12	.68	.610	.609	
		2nd	145	3.03	.63			
		3rd	97	3.13	.65			
		4th	136	3.10	.69			
	Total	1st	98	3.05	.25	.382	.766	
		2nd	145	3.09	.26			
		3rd	97	3.08	.24			
		4th	136	3.07	.25			
Career Decision Efficacy	Job Information	1st(1)	98	3.06	.65	2.879	.036	4>1
		2nd(2)	145	3.26	.78			
		3rd(3)	97	3.18	.75			
		4th(4)	136	3.34	.73			
	Select the target	1st	98	3.53	.77	1.902	.128	
		2nd	145	3.52	.78			
		3rd	97	3.37	.78			
		4th	136	3.60	.65			
	Future plans	1st	98	3.13	.62	1.039	.375	
		2nd	145	3.22	.72			
		3rd	97	3.09	.80			
		4th	136	3.22	.63			
Problem Resolution	1st	98	3.21	.74	1.271	.284		
	2nd	145	3.22	.73				
	3rd	97	3.08	.74				
	4th	136	3.26	.63				
Self-evaluation	1st	98	3.35	.82	1.969	.118		
	2nd	145	3.40	.71				
	3rd	97	3.34	.73				
	4th	136	3.55	.71				
Total	1st	98	3.26	.57	2.429	.065		
	2nd	145	3.32	.55				
	3rd	97	3.21	.57				
	4th	136	3.39	.50				
All	476	3.31	.55					

3.1.3 계열별에 따른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 효능감의 차이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 진로결정효능감이 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여기서 연구대상자 중 인문계열과 공학계열 학생으로 정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의 대학통계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2012년 대학 졸업 후 취업 통계 조사를 보면,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난 인문계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계열별로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6]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major field

	Spec.	Major Field	N	M	SD	F	p
Career Locus of Control	Internality	Humanity	167	4.09	.65	26.203	.000
		Technology	140	3.69	.74		
		All	307	3.91	.72		
	Efficacy and Helplessness	Humanity	167	3.48	.71	11.103	.001
		Technology	140	3.20	.71		
	Indirectly Environmental	Humanity	167	2.65	.58	16.989	.000
		Technology	140	2.93	.61		
		All	307	2.78	.61		
	Directly Environmental	Humanity	167	1.94	.71	15.286	.000
		Technology	140	2.30	.86		
		All	307	2.10	.80		
	Luck and Opportunity	Humanity	167	3.07	.72	.000	.986
Technology		140	3.07	.64			
All		307	3.07	.68			
Total	Humanity	167	3.06	.25	.001	.969	
	Technology	140	3.06	.28			
	All	307	3.06	.27			
Career Decision Efficacy	Job Information	Humanity	167	3.27	.68	6.489	.011
		Technology	140	3.06	.75		
		All	307	3.18	.72		
	Select the target	Humanity	167	3.56	.72	7.785	.006
		Technology	140	3.33	.74		
		All	307	3.45	.74		
	Future plans	Humanity	167	3.12	.72	.349	.555
		Technology	140	3.17	.63		
		All	307	3.14	.68		
	Problem Resolution	Humanity	167	3.35	.74	19.311	.000
		Technology	140	2.99	.68		
		All	307	3.19	.73		
Self-evaluation	Humanity	167	3.53	.69	11.891	.001	
	Technology	140	3.24	.76			
	All	307	3.40	.73			
Total	Humanity	167	3.37	.55	11.990	.001	
	Technology	140	3.16	.49			
	All	307	3.27	.53			

첫째, 진로내외통제소재에서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요

인별로 살펴보면, 내적통제($F=26.203, p<.001$)와 효능감 및 무력감($F=11.103, p<.01$)에서는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이 높게 나타났고, 간접적 환경($F=16.989, p<.001$)과 직접적 환경($F=15.286, p<.001$)에서는 공학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행운 및 기회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진로결정효능감에서는 인문계열이 공학계열보다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990, p<.01$).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F=6.489, p<.01$), 목표선택($F=7.785, p<.01$), 문제해결($F=19.311, p<.001$), 자기평가($F=11.891, p<.01$)에서는 공학계열보다 인문계열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래계획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로내외통제소재에서 인문계열은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간접적 환경과 직접적 환경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학계열 학생들은 외부환경에 의해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이 된다고 믿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은 인문계열이 공학계열보다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하위 영역에서 미래계획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진로결정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상관관계 검증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진로내외통제소재의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은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내적통제와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진로내외통제소재의 하위요인 간접적 환경, 직접적 환경, 행운 및 기회와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 목표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특히, 진로내외통제소재의 간접적 환경은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간접적환경, 직접적환경과 행운 및 기회의 요인이 낮음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 하위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Spec.	Career Locus of Control					Career Decision Effica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417 ^(**)								
③	-.310 ^(**)	-.468 ^(**)							
④	-.576 ^(**)	-.287 ^(**)	.275 ^(**)						
⑤	-.009	-.233 ^(**)	.398 ^(**)	.081					
⑥	.360 ^(**)	.243 ^(**)	-.161 ^(**)	-.102 ^(*)	-.087				
⑦	.419 ^(**)	.431 ^(**)	-.298 ^(**)	-.164 ^(**)	-.129 ^(**)	.542 ^(**)			
⑧	.286 ^(**)	.418 ^(**)	-.293 ^(**)	-.087	-.105 ^(*)	.498 ^(**)	.576 ^(**)		
⑨	.268 ^(**)	.190 ^(**)	-.149 ^(**)	-.117 ^(*)	-.037	.254 ^(**)	.347 ^(**)	.385 ^(**)	
⑩	.392 ^(**)	.404 ^(**)	-.269 ^(**)	-.280 ^(**)	-.082	.412 ^(**)	.604 ^(**)	.565 ^(**)	.410 ^(**)

* p<.05 ** p<.01 (N=476)

- ① Internality
- ② Efficacy and Helplessness
- ③ Indirectly Environmental
- ④ Directly Environmental
- ⑤ Luck and Opportunity
- ⑥ Job Information
- ⑦ Select the target
- ⑧ Future plans
- ⑨ Problem Resolution
- ⑩ Self-evaluation

3.3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8과 같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가 .596~.826, 분산팽창인자가 1.210~1.677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째로 직업정보수집 요인은 내적 통제(p<.001), 직접적 환경과 효능감 및 무력감(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은 직업정보수집에 대하여 15.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9.692, p<.001).

둘째, 목표설정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효능감 및 무력감과 내적통제(p<.001),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목표설정 요인에 대하여 26.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678, p<.001).

셋째, 미래계획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효능감 및 무력감과 내적통제(p<.001),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p<.01)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미래계획 요인에 대하여 20.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133, p<.001).

넷째, 문제해결 요인은 내적통제(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은 문제해결 요인에 대하여 7.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6.565, p<.001).

다섯째, 자기평가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p<.001), 직접적 환경(p<.01), 간접적 환경(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자기평가 요인에 대하여 22.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235, p<.001).

여섯째,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p<.001), 직접적 환경(p<.01), 간접적 환경(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진로결정효능감 전체 요인에 대하여 30.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692, p<.001). 따라서, 진로내외통제소재의 하위요인인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의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은 문제해결과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Factors in Career Locus of Control affecting Career Decision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Job Information	(constant)	.714	.311		2.294	.022
	Internality	.435	.059	.406	7.435	.000
	Directly Environmental	.166	.052	.167	3.225	.001
	Efficacy and Helplessness	-.125	.048	-.422	2.618	.009
	Adj R ² =.153 F=29.691 p<.001					
Select the target	(constant)	1.204	.368		2.789	.006
	Efficacy and Helplessness	.286	.048	.278	5.930	.000
	Internality	.387	.055	.359	7.067	.000
	Directly Environmental	.150	.048	.149	3.085	.002
	Indirectly Environmental	-.123	.057	-.098	-2.168	.031
Adj R ² =.269 F=44.678 p<.001						
Future plans	(constant)	1.411	.357		3.946	.000
	Efficacy and Helplessness	.307	.047	.320	6.546	.000
	Internality	.207	.053	.205	3.877	.000
	Directly Environmental	.147	.047	.157	3.114	.002
	Indirectly Environmental	-.144	.055	-.123	-2.610	.009
Adj R ² =.208 F=32.133 p<.001						
Problem Resolution	(constant)	2.093	.187		11.209	.000
	Internality	-.275	.045	-.268	6.047	.000
	Adj R ² =.070 F=36.565 p<.001					
Self-evaluation	(constant)	1.239	.193		6.419	.000
	Efficacy and Helplessness	.297	.045	.291	6.539	.000
	Internality	.290	.048	.271	6.072	.000
	Adj R ² =.221 F=68.235 p<.001					
Total	(constant)	1.369	.264		5.188	.000
	Internality	.314	.039	.396	7.974	.000
	Efficacy and Helplessness	.210	.035	.278	6.078	.000
	Directly Environmental	.105	.035	.142	3.005	.003
	Indirectly Environmental	-.090	.041	-.097	-2.194	.029
Adj R ² =.303 F=52.692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은 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진로내외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진로내외통제소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여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진로결정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분석하여 진로지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내외통제소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은 내적통제가 남학생은 직접적환경과 간접적환경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목표선택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에 따른 진로내외통제소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직업정보에서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관심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계열별에 따른 진로내외통제소재는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은 인문계열이, 간접적환경과 직접적환경은 공학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은 계열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정보와 목표선택 및 문제해결, 자기평가에서 공학계열보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진로내외통제소재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내외통제소재의 하위요인 즉,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 직접적환경, 간접적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로내외통제소재의 하위요인인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의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은 문제해결과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통제소재가 진로결정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소재와 진로결정효능감은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면 진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취업을 해야 하는 부담감, 청년실업의 문제 등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지는 고민이기에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14]와 학년과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15]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학년과 전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14]결과를 지지해주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내외통제와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결과가 대학생들이 여러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각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구직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에 진로내외통제소재의 하위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는 진로내외통제소재의 하위요인인 내적통제와 효능감 및 무력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 구직활동을 하는데 내적통제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8] 결과를 지지해주며, 내적통제를 가진 학생들이 외적통제소재를 가진 학생들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며[16],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다는 연구[17] 결과를 볼 때, 내적통제 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진로와 관련하여 내적통제요인이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보다 진로의사 결정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상담이나 진로프로그램 안에 외적통제자들을 위한 귀인 재훈련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8]. 또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진로결정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5]. 이는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지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내적통제 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내적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대학생 스스로 통제요인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개발·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평가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서의 진로결정효능감을 길러 줄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대학생들의 내적통제와 진로결정효능감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표집규모와 방법, 그리고 자료수집 방법상의 제한점이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연구도구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소 많은 질문지의 문항수로 인해 응답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질문지에 의한 통계에만 의존하였기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인 연구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im, B. K.,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of undergraduat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2] Lee, S. G., & Lee, J. 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oal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3), pp. 1137~1160, 2011.
- [3] Lyoo, Y. H., & Im, K. A., Perception Survey on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of Early Childhood Majors in K-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3), pp. 271~289, 2012.
- [4] Yun, S. W., & Kim, K. S.,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ocus of Control on Stress towards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2), pp. 606~614,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2.606>
- [5] Lee, K. H., & Lee, H. J.,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pp. 127~136, 2000.
- [6]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From field experiments to program implementation; Assessing the potential outcomes of an experimental invention program for unemployed pers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pp. 543~562, 1991.
DOI: <http://dx.doi.org/10.1007/BF00937991>
- [7] Speich, R. T., A review of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pp. 8~23, 1987.
DOI: <http://dx.doi.org/10.1007/BF01678269>
- [8] Kim, H. J., Instru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Locus of Control Scale for Korean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Seoul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9] Rotter, J. B.,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pp. 56~67, 1975.
DOI: <http://psycnet.apa.org/doi/10.1037/h0076301>
- [10] Blanchard-Fields, F., & Irion, J. C. The relation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coping in two contexts: Age as a moderator variable, Psychology and Aging, 3, pp. 197~203, 1988.
- [11] Kim, T. W.,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 Autonom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rom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2] Taylor, K. M., &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pp. 63~81, 1983.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dx.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13]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pp. 47~57. 1996.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14] Song, J. H., Difference in Employment-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mong University Student Based on Their Major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Master's Thesis, 2008.
- [15] Lee, Y. K., & Kang, K. H., The Analysis About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 - 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 Science Colleg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2), pp. 60~67, 2011.
- [16] Luzzo, D. A., & Ward, B. E.,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to the prediction of vocational congru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 pp. 307~317, 1995.
DOI: <http://dx.doi.org/10.1007/BF02106154>
- [17] An, J. S.,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ypes of Attribution Tendencies, the Decision Making and the Level of Career Development Decision Making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 교육과정, 다문화교육